'독짓는 늙은이'

한국영상자료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고전영화' 무료 상영

'혈맥' 등 200여편 구독자 80만명…470편 애니메이션 채널도

영화평론가 정성일 설명 'KOFA 코멘터리극장' 콘텐츠 추가

'의적 일지매'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

지난달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배우 윤정희는 1960년대 문희, 남정임과 함께 '1세대 여배우 트로이카'로 불렸다. 생전에 28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한 그는 대종상 여우주연상 등 24차례에 걸쳐 각종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윤정희의 작품이 궁금했던 이들은 유튜브 채널 '한국고전영화극장'에서 김수용 감독의 '안개' 등 그의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영상자료원(KOFA)이 운영하는 '한국고전영화' 채널이 영화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IPTV나 OTT에서 보기 힘든 한국고전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채널로 구독자가 80만명에 달한다.

지난 2012년 김수용 감독의 '혈맥'(1963)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0여 편의 국내 고전영화가 공개됐다.

사이트를 방문하면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팅 돼있는 '재생목록'을 통해 취향 따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마월클래식'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의미있는 한국고전영화 한 편을 공개하는 코너로 누적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카인의 후예'(유현목·1968), '귀로'(이만희·1967), '꿈'(신상옥·1955), '돌아온 외다리'(이두용·1974), '사의 찬미'(김호선·1991), '수절'(하길종·1973), '사방지'(송경식·1988), '바보사냥'(김기영·1984) 등 총 8편이 공개됐다.

올해는 사극 전문 영화감독으로 약 70여편을 제작한 장일호 감독의 데뷔작 '의적 일지매'(1961)를 첫 영화로 선보이고 있다. '의적 일지매'는 당시 대부분의 영화가 700여 컷으로 구성됐던 데 반해 1000여 컷의 과감한 편집으로 제작해 활극의 묘미를 제대로 살린 작품으로, 이예춘, 신영균, 최은희, 도금봉, 김희갑, 허장강, 구봉서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열연했다.

올해부터는 영화감독 겸 영화평론가 정성일의 해설과 함께 고전영화를 즐길 수 있는 'KOFA코멘터리극장' 콘텐츠도 선보이고 있다. 한 편의 한국고전영화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보고 들으며, 동시대적 관점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로 한국고전영화에 입문하는 이들이나, 더 깊고 넓게 영화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제작했다.

KOFA코멘터리극장 첫 번째 작품은 김승호 주연의 '마부'(강대진 감독·1961)다. 서민드라마와 빈곤의 리얼리즘을 오가는 영화의 메커니즘을 정성일 평론가가 해부해 들려준다.

'~이 추천한 한국영화 시리즈'는 200여편의 작품 중 어떤 작품부터 감상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코너다.

영화 평론가 달시 파켓과 정성일, '미스테리아' 김용언 편집장, 한국영상자료원 김홍준 원장 등이 출연해 영화를 추천하며 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작을 설명하는 대담영상도 만날 수 있다. '우묵배미의 사랑', '바보선언' 등 봉준호 감독이 추천한 한국영화 7선도 소개됐다.

그밖에 '레스트 인 피스 윤정희'(REST IN PEACE 윤정희) 섹션을 통해서는 김수용 감독의 '안개'(1967)·'화려한 외출'(1977)·'야행'(1977), 신상옥 감독의 '내시'(1968)·'궁녀'(1972), 최하원 감독의 '독짓는 늙은이'(1969), 이성구 감독의 '장군의 수염'(1968), 이만희 감독의 '0시'(1972), 변장호 감독 등의 '명동잔혹사'(1972) 등 그의 대표작 10편을 만날 수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극장용·TV시리즈물 등 한국 고전 애니메이션 약 470편을 볼 수 있는 '한국애니메이션 채널'도 운영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창백한 푸른 점'

아름다운 우주 '창백한 푸른 점'

김건 개인전, 3월 8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만나다.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 건 작가 개인전이 오는 3월 8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2관에서 열린다.

'우주'를 소재로 다양한 작업을 해온 김 작가의 이번 전시 주제는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 문장은 1977년 발사된 태양계 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태양계 행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속 지구를 폴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른 데서 연유한다.

작가는 우주 속을 유영하는 우주인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해 작업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우주인은 현대인이 느끼는 방황과 외로움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가 상상하는 우주인의 모습은 원인모를 행성에 불시착해 떠도는 불안한 우리 사회를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다.

우주선 등 작품에 묘사되는 소재의 디테일은 전통 유화기법으로 세밀하게 표현됐고, 실제 우주공간을 연상시킨다.

작가는 "하늘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우주의 별들은 방황하는 나의 한줄기 빛과 같은 이상향이다. 작품에 보이는 무수한 푸른점들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미로메타아트' '미러 모멘트' 미래 예술을 만나다

광주 동구, 28일까지 미로센터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기술진화로 급변하는 예술 영역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미로메타아트 Miro Meta Art 프로젝트'와 공유 쇼케이스 '미러 모멘트 MIrROr Moment'를 28일까지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서 개최한다.

또 오프라인 한계를 넘어서는 국제적 소통을 위해 예술의 거리 현재 모습을 재현한 '온라인 월드맵(스페이셜 플랫폼)' 글로벌 관계망에도 '미로메타아트 프로젝트' 디지털 예술 전시 콘텐츠를 동시에 선보인다.

'미로메타아트' '미러 모멘트' 전시에는 ▲디지털 아트 국제공모 '제 1회 미로 레이스' 선정 작가(40명) ▲스페셜 초청작가(김기라, 김보슬, 서효정, 진시영, 최재영, Studio mbus703) ▲동구 예술의 거리 입주 작가(김춘미, 한미경, 정혜영, 최수미, 박제인, 문서현, 김병택, 김정연)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경과 이주', '기후변화와 위기', '코비드 19와 뉴노멀' 3개 주제를 구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밖에 전시에서는 MM토크와 메타버스 복셀스 공간에서 진행된 놀이 형식의 워크숍 MM 캠프 '미로 메타 그라운드 Miro Meta Ground' 아카이브 영상도 선보인다.

한편 12개국 125명이 응모한 제 1회 미로 레이스 입상작으로는 1등을 수상한 윤영원 작가의 'We = flower', 2등 김재인의 '더 뉴뉴 노멀', 3등 티안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신화'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윤영원 작가 'We = flower'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시 동구가 주최하고 미로센터, (사)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유)유아트랩서울이 공동주관했으며 휴먼팩토리(인간공장), 야화의 기술협력으로 진행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 근대호남유학연구단-제주대 인문학연구소

20일, 제주대 문화원형체험관서 공동 학술대회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노사학파가 호남을 넘어 영향력을 확대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근대호남유학연구단은 오는 20일 제주대 인문학연구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제주대 인문대학 1호관 문화원형체험관.

'근·현대 제주유학과 노사학파'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안달삼(安達三)과 안병택(安秉宅) 등 노사학맥의 제주지역 전파를 비롯한 제주지역의 근·현대 유학과 노사학맥의 상호 연관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박학래(군산대)의 '근현대 제주 유학의 지형 변화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이향준(전남대)의 '20세기 호남유학의 독서종자', 서영이(전남대)의 '19세기 거문도의 유교적 보수화를 주도한 사상가, 김류'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김새미오(제주대)의 '조선-근대 제주 유학 지식인의 형성과 발전'과 장창훈(한국외대)의 '성리학적 구성주의에 따른 제주 출신 근대 유학자의 표준화와 활용에 관한 소고'의 주제가 다뤄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문잔치 2023 광산아카데미 열린다

23일 조영남 교수 첫 강연…노성태·윤진철·황지우 등 참여

광산구가 주최하고 인문연구원 동고송이 함께하는 명사들의 인문잔치 '2023 광산아카데미'가 열린다.

매월 세번째 주 목요일(오후 3시~5시) 광산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는 오는 23일 '차이나는 클래스' 명강사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은 어디로 가나'로 문을 연다. 이어 3월16일에는 유시민 작가의 '좋은 삶은 독서에서 시작한다'가 펼쳐진다.

4월에는 배석철 충북대 교수의 '재발 없는 항암제 그 답은 세포에 있다'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한류와 한국문화의 정체성' 강연이 열린다.

또 '광주의 기억을 걷다'를 펴낸 노성태 역사해설가가 '광주의 역사, 광주인의 정체성'(6월15일) 강연에 이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윤진철의 '내가 아는 임방울의 소리 내력'(7월20일), 조용준 건축학자의 '광주의 도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8월17일)도 준비돼 있다.

유시민

유홍준

그밖에 엄홍길 산악인의 '나는 왜 네팔 어린이를 돕는가'(9월7일), 나익주 인지언어학자의 '은유로 보는 한국 사회'(9월21일), 황지우 시인의 '누구나 시인이 되는 순간이 있다'(10월19일), 박주정 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우리가 만들어갈 교육'(11월16일), 오정묵 전 광주 MBC PD의 '임을 위한 행진곡'(12월21일) 등의 강연이 펼쳐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지역문화인력 양성기관 3년 연속 선정

나주·담양·목포·해남 진행…3~4월 사업 시작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지역이 과정이다, 전남 사람책' 과정으로 올해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프롤로그(기본과정)-에피소드(맞춤과정)-에필로그(성과공유회) 등으로 구성됐다. 메인 에피소드 과정은 나주 '문화재생공간기획', 담양 '생태문화기획', 목포 '해양도서문화기획', 해남 '농촌문화기획'으로 4개 지역에서 각 지역 문화자원의 특색을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특히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담양군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 등 지역 문화기관과 공동운영 컨소시엄 협약을 맺어 진행한다.

수료 후에는 전문가 멘토링과 A/S 과정, 지역 문화현장 배치 등 수료생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일자리 매칭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생 모집은 전문가와 기획워크숍을 통한 세부커리큘럼 수립을 거쳐 오는 3~ 4월 중 시작한다.

한편 전남문화재단은 지난해 이 사업에서 진도 마을축제를 주제로 기획한 교육생이 최우수 프로젝트상(문체부 장관상)을, 전남문화재단은 우수 기관상(지역문화진흥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